

친환경농업 특화지역 농업인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조사*

허 승 욱**

Survey Results of the Organic Farmers' Attitude on Agriculture and Rural Area

Heo, Seung-Wook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sis the farmer's attitude on agriculture and rural area where is developed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EFA). To analysis satisfaction level and prospect about EFA, farmer's survey were conducted. The sample size of the survey was 176 respectively. Of the farmers surveyed, 85.9% thought their income is higher than general farmer in the same area. However, when asked how the future income change, 40.7% responded that will be decreasing step by step. 89.2% of the farmer respondent thought that they want dwelling in rural area and continuing agriculture in the future. However, 29.9% of the farmer respondent thought that rural area is not proper to their children as the future residence. In order to training of new farmer, it is very important to set up stable income structure, improving of welfare facilities, medical facilities and education infra and so on. In addition, it need to develop and spread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technology, price preserva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roduct and supply extens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material etc.

Key words :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farmer's survey*

I. 서 론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한·미 FTA 등 농업 개방 기조의 정책현안에 따라 그 어느 때

* 이 연구는 2005년도 단국대학교 총동창회지원 연구비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교수

보다 농업·농촌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농업 관련 종사자 수, 경지면적, GDP 대비 농업총생산액, 수입농산물 규모 등 농업 관련 주요 지표들의 감소·증가세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농업인구만 하더라도 2000년에 9,381천명에서 2005년에 8,764천명으로 6.6%나 감소하였다.

따라서 지금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정책적 초점을 두고 전 국민적이며, 전방위적인 정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한 우선적 과제는 농업·농촌의 주체라 할 수 있는 농업인들의 문제 인식과 전망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다. 지금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농업인 의식 조사’ 등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그동안의 정책형성 과정에 중요하게 활용되었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된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이는 친환경농업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농업 종사자 수의 변화추이만 보더라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는 2000년 2,448호에서 2006년 70,963호로 약 30배 정도가 증가되었으며, 지금도 증가일로에 있다. 이제는 친환경농업을 농업·농촌 지속가능성의 유지 및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이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업 및 소득 등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를 살펴보고(일반 농업 대비 소득수준에 대한 인식, 소득 전망), 농업·농촌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식조사(전망 작목 및 재배의향, 농업 지속 및 농촌거주에 대한 의향, 후계인력 양성 및 친환경농업 발전과제 등) 등을 통하여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의 의식 변화와 향후 농가의 대응 방향을 조사·분석하고, 향후 정책형성 및 추진의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II. 조사의 개요

1. 조사지역 및 방법

이 조사는 지역농업 추진주체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실천되고 있는 A시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2006년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조사는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된 표준조사표를 중심으로 농가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하였고, 조사표의 주요 내용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생산 및 소득구조, 농업인들의 농업·농촌 및 친환경농업의 향후 전망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167명으로부터 추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항목별 빈도 분석과 요인별 교차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통계패키지는 SPSS 12.0을 활용하였다. 연령별로 요인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성검정(χ^2)을 통하여 이 응답비율이 각 요인별로 어떤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 응답자 특성

설문조사에 응한 전체 167명 응답자들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50대 미만이 12.6% (21명), 50대가 28.8%(48명), 60대가 37.2%(62명)이었으며, 70대 이상이 21.6%(36명)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연령대가 고령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남성 응답자들이 91.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농가의 평균 가족구성원은 3.3명이고, 가구당 농업종사자 수는 2명(66.5%) 또는 1명(15.6%)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명 13.8%, 4명 이상 4.2% 등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응답자 특성

구 분	응답자수 (명)	구성비 (%)	
연 령	50대 미만	21	12.6
	50대	48	28.8
	60대	62	37.2
	70대 이상	36	21.6
	합 계	167	100.0
성 별	남성	153	91.6
	여성	14	8.4
	합 계	167	100.0
농업 종사자 수	1명	26	15.6
	2명	111	66.5
	3명	23	13.8
	4명 이상	7	4.2
	합 계	167	100.0

Ⅲ. 사례지역의 농업생산 및 소득구조

이 연구의 사례지역은 산업적, 자연 환경적, 전통 문화적 측면에서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농업 발전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

리 농업과 공업 및 상업, 관광 등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복합 산업화 지역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가공의 기반이 되는 생산자조직이 건실하게 구축, 활동하고 있으며, 생산되고 있는 농특산물(쌀, 배, 포도, 콩 가공식품, 김치, 떡류 등)의 재배·가공기술이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지역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례지역 농가들의 농업생산 및 소득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배작목 및 가축사육

응답자들의 전체 재배면적은 약 525.2ha이며, 1인당 평균 재배면적은 약 2.98ha이다. 전체 재배면적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작목은 쌀로서 전체 재배면적의 7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잡곡류는 전체 재배면적의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콩, 보리, 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콩 재배면적인 10.5%로 높은 이유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원료로 한 두부, 콩나물, 두유 등의 가공품에 대한 소비 선호가 높기 때문이다.

채소류는 전체 재배면적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파, 고추, 배추 등 약 20여 종 이상이 재배되고 있다. 파 재배면적이 2.3%로 가장 많고, 고추 재배면적이 1.4%, 배추 재배면적이 0.5% 등을 차지하고 있다.

과수류는 전체 재배면적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배 재배면적이 대부분(전체 재배면적의 4.4%)을 차지하고 있고, 복숭아, 사과, 포도 등이 일부 재배되고 있다.

〈표 2〉 재배작목 현황

구 분	재배면적 (ha)	구성비 (%)
쌀	391.1	74.5
잡곡류	71.4	13.6
채소류	33.0	6.3
과수류	25.4	4.8
기 타	4.3	0.8
합 계	525.2	100.0

가축사육은 한우, 닭, 돼지, 메추리 등 8종이 사육되고 있으며, 그 중 한우는 사육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내에서 유기경종과 연계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품목이다<표 3>.

〈표 3〉 가축사육 현황

(단위 : 두, 수)

구 분	닭	돼지	메추리	사슴	오리	젓소	토끼	한우
합 계	8,197	400	60,000	39	20	70	80	383

2. 농가소득 및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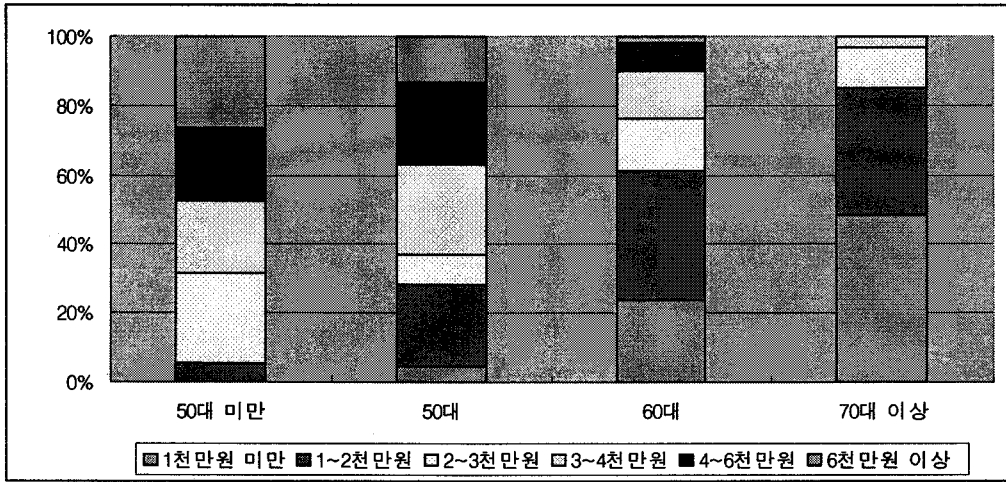
사례지역 농가들의 연간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인 농가가 2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천만원 미만 농가들도 1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음이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인 농가들로 15.0%,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농가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천만원 이상 고소득 창출 농가들도 7.2%로 나타났다<표 4>.

〈표 4〉 농가의 연간수입 현황

구 분	응답자수 (명)	구성비 (%)
1천만원 미만	32	19.2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46	27.5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2	13.2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25	15.0
4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20	12.0
6천만원 이상	12	7.2
무응답	10	6.0
합 계	167	100.0

연령별로 농가소득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저연령대에서 고연령대로 갈수록 비교적 저소득이라 볼 수 있는 1천만원 미만대와 1~2천만원대 점유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1천만원 미만 저소득 농가들은 65세 이상이 7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6천만원 이상 고소득 창출 농가들은 대부분 50대 미만과 50대들이며, 이 연령대의 소득대별 분포가 다양하며, 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농가들의 농외소득은 전체 응답자 167명 중에서 농외소득이 전혀 없는 농가들이 71.3% (119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이 9.0%,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8.4%, 5백만원 미만이 4.8%,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이 3.0%,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이 2.4%, 4천만원 이상이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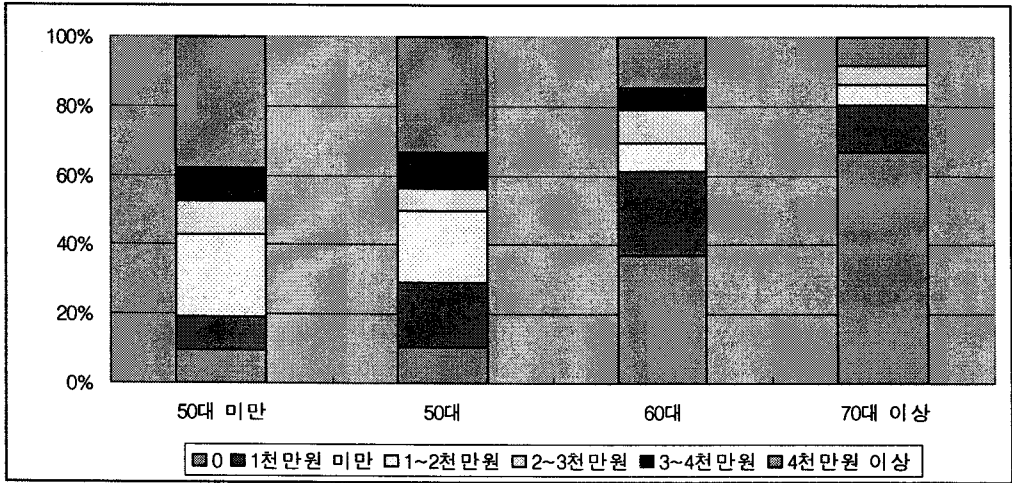
〈그림 1〉 연령별 농가소득 현황

농가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부채가 전혀 없는 농가가 32.3%로 많은 편인 반면, 4천만원 이상 부채 농가들도 21.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규모가 2천만원 미만 농가들이 31.8%였으며, 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농가들은 19.8%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농가부채 현황

구 분	응답자수 (명)	구성비 (%)
0원	54	32.3
1천만원 미만	31	18.6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22	13.2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13	7.8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11	6.6
4천만원 이상	36	21.6
합 계	167	100.0

농가부채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부채가 전혀 없는 농가들은 대부분 70세 이상 고령 농가들이며, 저연령대에서 고연령대로 가면서 1천만원 미만대의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4천만원 이상 농가부채는 50대 미만 연령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연령별 농가부채와 농가소득간의 관계는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도 높아지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그림 2>.



〈그림 2〉 연령별 농가부채 현황

IV. 농업·농촌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식조사

1. 소득수준 및 향후 소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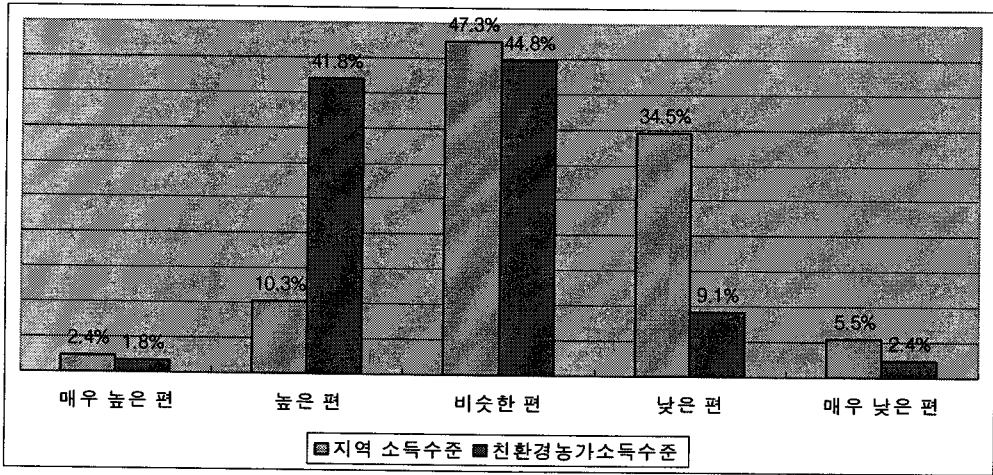
1) 일반 농업 대비 소득수준에 대한 인식

사례지역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실현하는 소득수준이 일반 농가들과 비교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응답자들이 영농을 하고 있는 지역의 소득수준과 다른 지역 농가들과 비교할 때 비슷한 편이라는 응답이 47.3%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낮은 편 34.5%, 높은 편 10.3%, 매우 낮은 편 5.5%, 매우 높은 편 2.4%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비슷하거나 높다는 의견이 낮거나 매우 낮다는 의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그림 3>.

그리고 응답자들이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들의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높은 편이라는 의견이 41.8%로 가장 높았고, 비슷한 편 44.8%, 낮은 편 9.1%, 매우 낮은 편 2.4%, 매우 높은 편 1.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례지역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들은 소득수준이 지역 내 일반 농가들보다는 비슷하거나 높다는 의견이 85.9%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3>.

이를 종합해 보면, 다른 지역과 비교할 경우의 소득수준은 대체로 비슷한 편이지만, 지역 내 일반 농가와 비교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들의 소득수준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소득수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의 소득 변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증가하였다는 의견이 13.2%인 반면, 대체로 감소하였다는 의견이 49.1%, 변함없다는 의견이 37.7%로 감소 또는 불변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최근 3년간의 소득변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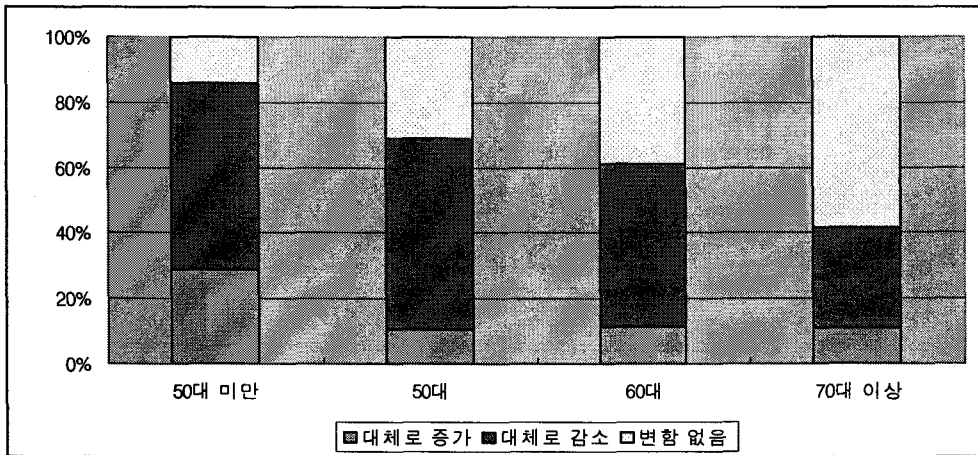
구 분	응답자수 (명)	구성비 (%)
대체로 증가하였다	22	13.2
대체로 감소하였다	82	49.1
변함이 없다	63	37.7
합 계	167	100.0

소득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생산규모가 확대되어서라는 이유가 50.0%로 가장 많았고,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과 친환경 쌀의 가격보장 등이 41.7%, 기타 8.3%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지역에서 지역농업 주체들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장려와 기술 지원, 그리고 친환경 쌀 수매를 통한 가격지지 등의 활동이 지역 내 친환경농가들의 소득증대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농가들은 농산물 가격 하락(69.6%) 등 거시적 요인을 가장 주된 이유로 꼽았고,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12.5%, 기타 의견이 18.0%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농가들의 경우, 관행적인 방식보다 비료, 농약, 퇴비 등의 투입자재 감소가 소득감소의 주된 이유로 생각하고 있었

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판매시기의 부적절, 친환경농업 기술의 부족,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증가, 소비 감소 등이 있었다.

연령별로는 최근 3년 동안 소득이 대체로 증가했다는 의견은 50대 미만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득 변화가 없다고 인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또한 소득이 대체로 감소했다는 의견은 저연령층에서의 비중이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4>.



<그림 4> 연령별 최근 3년간의 소득변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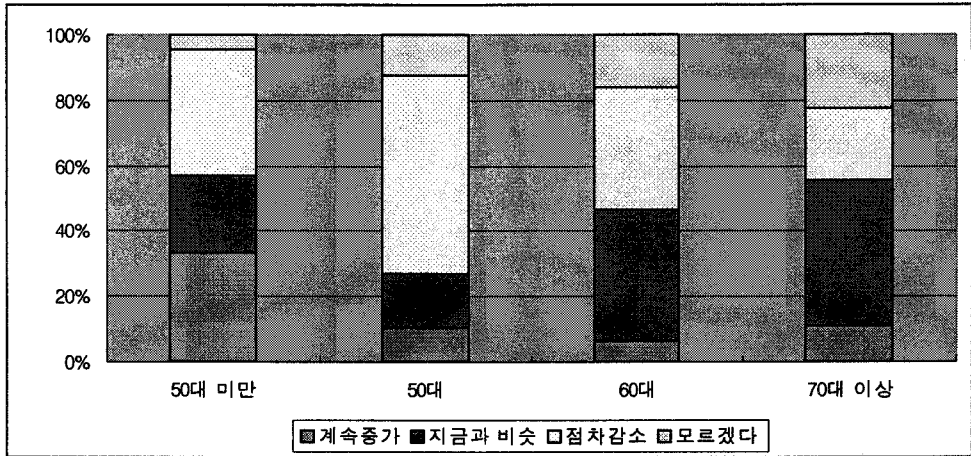
2) 향후 소득 전망

향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들의 소득변화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40.7%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12.0%로서 낙관적인 견해보다는 비관적 견해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금과 비슷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견해는 각각 32.3%, 15.0%로 나타났다<표 7>.

<표 7> 향후 소득 전망

구 분	응답자수 (명)	구성비 (%)
계속 증가할 것이다	20	12.0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54	32.3
점차 감소할 것이다	68	40.7
잘 모르겠다	25	15.0
합 계	1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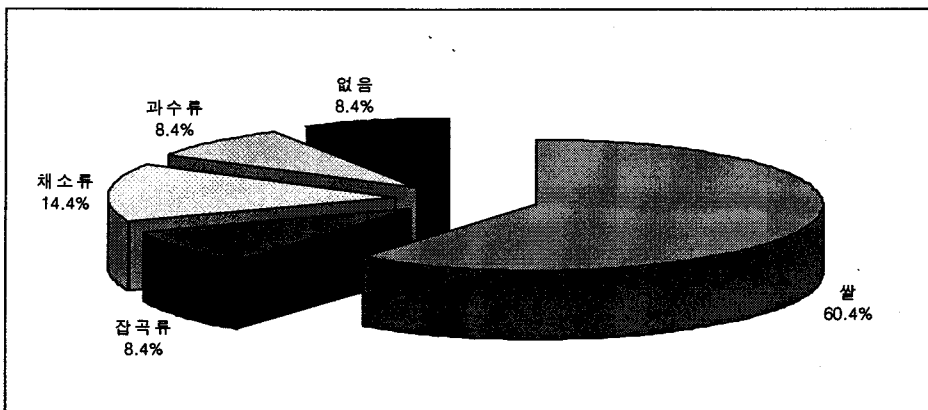
향후 소득 전망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미만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비중(33.3%)이 50대(8.7%), 60대(4.3%), 70대 이상(11.1%)보다 높게 나타났고,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은 고연령대로 가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50대의 경우,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65.2%로 다른 연령대와 달리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5>.



<그림 5> 연령별 향후 소득변화

2. 유망 작목 및 재배의향

사례지역 응답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향후 유망한 작목으로는 쌀이 6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이 채소류로 14.4%, 과수류 8.4%, 잡곡류 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전망 있는 재배작목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무응답 포함)도 8.4%였다<그림 6>.



<그림 6> 향후 유망 작목

향후 유망한 작목을 재배할 의향에 대해서는 현재 재배 중이라는 응답이 50.9%로 현재도 전망작목을 중심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향후 35.3%가 재배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배의향이 없거나 무응답을 한 유보적 의견도 13.8%로 나타났다<표 8>.

〈표 8〉 유망 작목에 대한 재배의향

구 분	응답자수 (명)	구성비 (%)
예	59	35.3
아니오	6	3.6
현재 재배 중	85	50.9
무응답	17	10.2
합 계	167	100.0

가축 사육에 대해서는 향후 한우 사육에 대한 응답비중이 50.9%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돼지, 사슴, 젓소, 기타(메추리 등) 비율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가축 사육 계획이 없는 경우도 39.5%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작 재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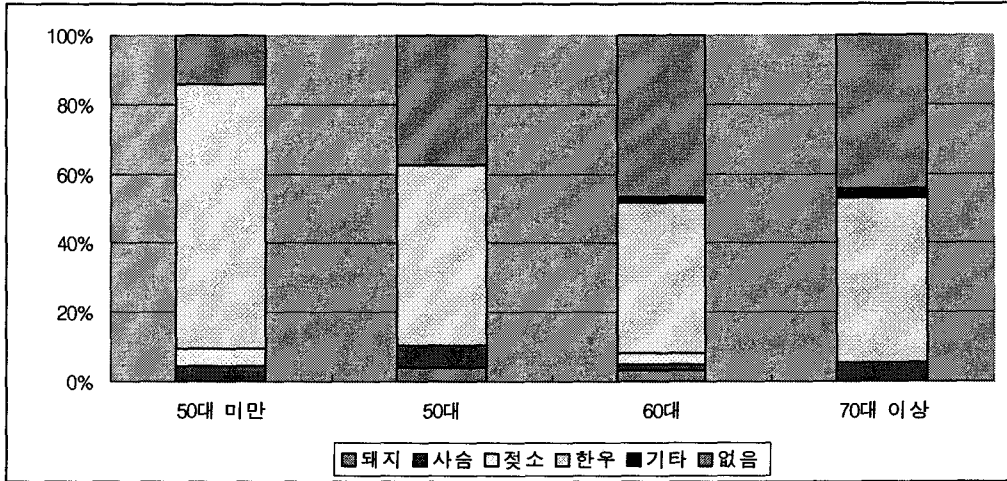
〈표 9〉 향후 유망한 가축사육

구 분	응답자수 (명)	구성비 (%)
돼 지	4	2.4
사 슴	7	4.2
젓 소	3	1.8
한 우	85	50.9
기 타	2	1.2
없 음	66	39.5
합 계	167	100.0

주) 없음에는 무응답 포함.

향후 전망 있는 가축 사육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미만의 경우 한우가 높은 비중(76.2%)을 차지하고 있고, 50대, 60대, 70대 이상에서는 한우 사육 또는 사육의사가 없는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50대 미만 농가들의 한우 사육

에 대한 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7>.



<그림 7> 연령별 전망 가축

3. 농업 지속 및 농촌거주에 대한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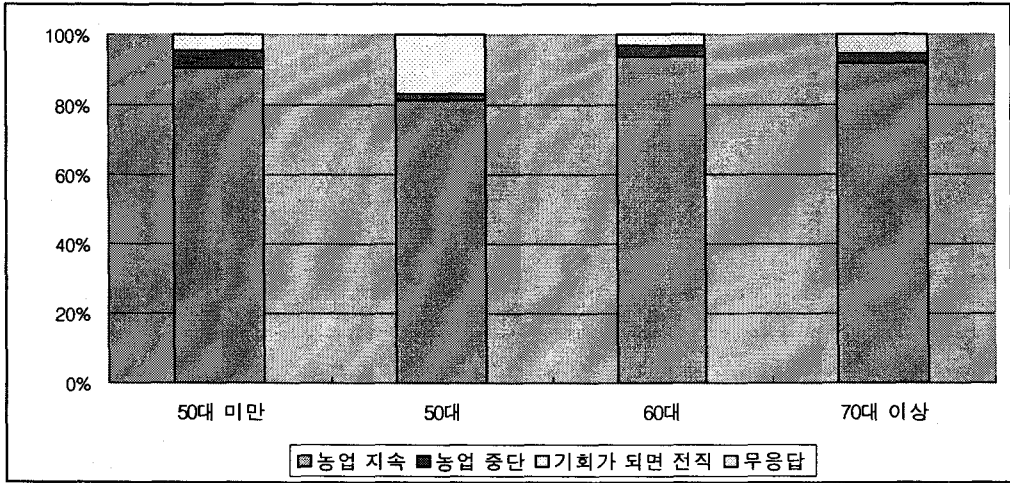
1) 농업 지속 및 전수에 대한 의향

농업의 지속여부에 대해서 지속하겠다는 응답이 89.2%로 지배적이었으며, 농업을 중단하거나 기회가 되면 전직하겠다는 의견은 각각 3.0%, 6.6% 정도로 나타났다<표 10>.

<표 10> 농업의 지속여부

구 분	응답자수 (명)	구성비 (%)
농업 지속	149	89.2
농업 중단	5	3.0
기회가 되면 전직	11	6.6
무응답	2	1.2
합 계	1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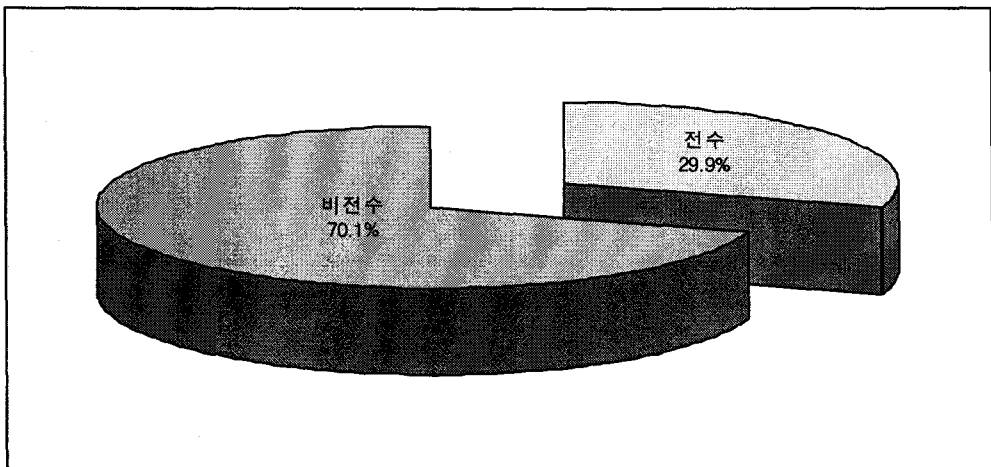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모든 연령대에서 농업 지속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50대의 경우는 다른 연령대와 달리 기회가 되면 전직하겠다는 의견이 21.7%로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8>.



〈그림 8〉 연령별 농업 지속여부

향후, 자녀들이 농업을 지속하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농업생산기술을 전수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70.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전수하겠다고 응답한 긍정적 견해도 29.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9>.

자녀에게 농업생산기술 전수계획이 없는 이유는 자녀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농업소득이 타 부문에 비해서 적을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에 반하여 자녀에게 농업생산기술을 전수하겠다는 농가들은 친환경농업이 일반농업에 비하여 소득과 경쟁력 측면에서 우월할 뿐만 아니라 도시생활 근로자들보다도 훨씬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림 9〉 자녀에게 농업생산기술 전수계획

2) 향후 농촌거주에 대한 의향

사례지역 응답자들의 농촌 거주 의향은 전체 응답자의 89.2%가 농촌에 거주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회가 되면 이주하거나 이주하겠다는 의향은 10.8% 정도로 나타나 지역 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표 11> 농촌 거주 의향

구 분	응답자수 (명)	구성비 (%)
농촌 거주	149	89.2
이주	5	3.0
기회가 되면 이주	13	7.8
합 계	167	100.0

응답자 본인들의 농촌 거주 의향과는 달리, 자녀들의 예상 거주지에 대해서는 인접한 도시에 거주할 것이라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서울 등과 같은 대도시 거주할 것이라는 응답이 26.9%에 달했다. 이에 반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거주하겠다는 응답은 16.8% 정도로 본인들과 함께 자녀들이 농촌에 거주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표 12>.

<표 12> 자녀들의 예상 거주지

구 분	응답자수 (명)	구성비 (%)
서울 등 대도시	45	26.9
인근 도시	80	47.9
현재 거주지	28	16.8
기 타	14	8.4
합 계	167	100.0

3) 생활개선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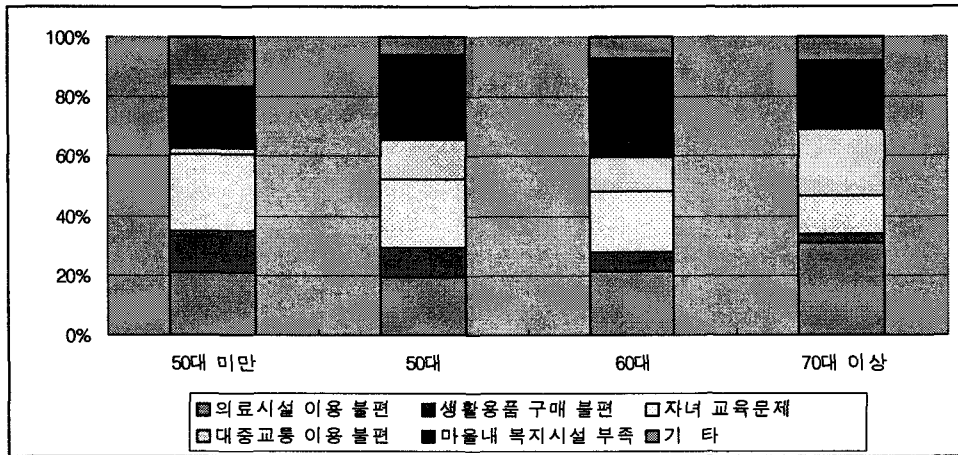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내 복지시설 확충이 2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의료시설 확충 22.7%, 교육문제 20.3%, 대중교통 13.1%, 생활용품 구매용이성 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3>.

〈표 13〉 생활불편 사항

구 분	응답자수 (명)	구성비 (%)
의료시설	66	22.7
생활용품 구매용이성	23	7.9
교육문제	59	20.3
대중교통	38	13.1
복지시설	81	27.8
기 타	24	8.3
합 계	291	100.0

주 : 중복응답 결과임.

응답자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의료시설 이용 불편에 대한 비중이 많은 반면, 자녀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그 비중이 낮아졌다. 그리고 50대와 60대의 경우, 마을 내 복지시설의 부족을 가장 큰 생활불편 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



〈그림 10〉 연령별 생활불편 사항

4. 후계인력 양성 및 친환경농업 발전과제

1) 농업 후계인력 양성에 대한 견해

농업 후계인력 양성방안은 다양한 소득안전망 구축(27.1%), 농기계 구입, 직접지불금 등

의 보조금 확대(23.5%), 농산물 가격 보장(16.5%) 등 경제적 측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 제고와 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10.6%), 농업 기계화 확대(7.1%) 등도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교육여건 및 농촌생활 개선이라든지 규제 개선과 관련된 의견은 많지 않았다<표 14>.

〈표 14〉 후계인력 양성 방안

구 분	응답자수 (명)	구성비 (%)
농산물 가격 보장	14	16.5
소득안전망 구축	23	27.1
교육여건 개선	5	5.9
농촌생활 개선	6	7.1
농업교육 확대	9	10.6
농업 기계화 확대	6	7.1
정부의 보조금 확대	17	23.5
토지관련 규제 개선	2	2.4
합 계	85	100.0

2)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로 친환경농업 기술개발·보급이 24.7%로 많았으며, 친환경농산물의 가격보전(21.1%), 친환경농자재의 보급 확대(15.3%), 친환경농가 확대(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5>. 친환경농자재 보급과 관련해서는 농자재의 가격인하나 보조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확대하여 시 단위 친환경농업지역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공동영농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기타의견으로는 상표문제, 복지시설, 소규모 유기농산물 판매 시 결산의 신속성 필요 등이었다.

〈표 15〉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구 분	응답자수 (명)	구성비 (%)
후계인력 양성	5	5.9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	5	5.9
친환경농업 기술개발·보급	21	24.7
친환경농자재의 보급 확대	13	15.3

구 분	응답자수 (명)	구성비 (%)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6	7.1
친환경농산물의 가격보전	18	21.1
친환경농가 확대	9	10.6
기 타	8	9.4
합 계	85	100.0

IV. 요약 및 시사점

친환경농업 특화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생산 및 소득구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농업 후계인력 양성 및 친환경농업 발전과제 등에 초점을 두고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수도작이 74.5%로서 사례지역 응답자들의 전체 재배면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한우의 사육비중이 높았다. 소득은 연간 1~2천만 원 미만이 27.6%로 가장 많았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들의 소득수준이 지역 내 일반 농가들보다는 비슷하거나 높다는 의견이 85.9%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향후 소득은 전체 응답자 중 40.7%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가 많았다. 향후 유망한 작목으로는 쌀이 60.4%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농가들을 중심으로 한우 사육에 대한 의지가 높았다.

농업의 지속여부와 농촌 거주의향은 각각 89.2%로 높은 반면, 자녀들의 주거지로서나 농업생산기술 전수에 대한 의지는 29.9% 정도로 나타났다.

농업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소득안전망 구축 등 경제적 측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지시설 확충, 의료시설 확충, 교육인프라 구축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보급, 친환경농산물의 가격보전, 친환경농자재의 보급 확대, 친환경농가 확대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 특화지역 농업인들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첫째,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들은 지역 내 일반 농가들과 비교하여 소득수준이 우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도 명확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 친환경농업이 농가소득을 제고하고, 농촌 활력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도 기대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유망 영농분야로서 수도작과 한우 사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유기경종-축산 연계를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이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실천에 있어 관건적 요소

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실천의지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지역 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간의 순환적 협력을 통해 농업부산물로 영농·사육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역 내의 유휴자원을 활용하고, 부산물 자원의 원활한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추진이 중요하다.

셋째, 친환경농업 특화지역 농가들은 앞으로도 농업을 지속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았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농업 전수에 대한 의지도 비교적 높게 나타남으로서 친환경농업이 지역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농업인들의 영농애로사항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후·기상조건,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이었으나 2004년 이후부터는 농촌인력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농촌인력 확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안정망 구축,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한 농업 후계인력 양성과 아울러 복지시설 확충, 의료시설 확충, 교육인프라 확충 등의 지역 활성화 정책이 동시적·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친환경농업 기술개발·보급, 친환경농산물의 가격보전, 친환경농자재의 보급 확대, 친환경농가 확대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환경농업 기술개발·보급체계 및 소득안정망 구축에 친환경농업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친환경농업이 활성화 된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50대 미만) 농업인들의 농업 열의 및 투자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책 결정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신규 또는 저연령 농가 지원정책이 고령농가에 대한 일방적인 경영이양 및 은퇴 촉진 등과 같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농촌인력 구성의 다양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농촌사회의 급속한 해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문접수일 : 2007. 8. 21; 최종논문접수일 : 2007. 9. 27.]

참 고 문 헌

1. 강창용 외. 1999.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행태 분석. 농촌경제 2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김동원·박혜진. 2006. 2005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림부. 2006. 농림업 주요통계.

4. 박대식·마상진·심대만. 2006.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조완형. 2004.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행태 및 특성 분석. 한국유기농업학회 12(1): 45-66.
6. 통계청. 2006. 농가경제 통계.